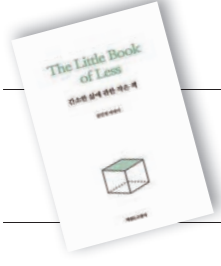


### 비우기 시작하면 삶의 '진짜'가 보인다

10년 차 미니멀리스트의 비움의 깨달음



간소한 삶에 관한 작은 책

진민영 지음, 책읽는고양이, 1만3000원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다면, 질적으로 나은 삶을 꿈꾸거나 혹은 생활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면 미니멀리스트식 사고가 필요하다.”

10년 차 미니멀리스트 진민영 작가의 신간 에세이 '간소한 삶에 관한 작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후 관련 서적을 섭렵하고 고민해 온 결과물이다.

저자에게 미니멀리즘이란 공간·삶·태도·감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몰입의 여비를 열어 주는 도구다. 곧 미니멀리즘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가늠하는 기준을 정립하게 해 주며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다소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미니멀리즘이야말로 시끄럽

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려는 모두에게 필요한 기준이 된다. 꼭 필요한 물건만 놓고 생활함으로써 짐작과 욕심을 멀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 또한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의 태도에 변화를 맞았다. 소박하지만 풍요로울 수 있고 단순하지만 지혜로울 수 있으며 간결하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그가 말하는 미니멀리즘의 본질이다. 미켈란젤로도 '다비드의 탄생 비화'를 묻는 질문에 "다비드가 아닌 것을 다 없애고 나니 다비드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편 진민영 작가는 '조그맣게 살 거야' '일상이 미니멀' '내향인입니다' 등의 단행본을 통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이들에게부터 신뢰를 쌓아 왔다.

임유이 기자 iye@skyedaily.com

### 생의 노을이 지는 시간... 노년기 아닌 노을기

삶의 진경 담아낸 강은교 신작 시집



미래슈퍼 열 환상가계

강은교 지음, 민음사, 1만2000원

강은교 신작 시집 '미래슈퍼 열 환상가계'가 출간되었다. 강은교의 시는 생의 노을이 지는 시간, "강물 위로 서서히 가라앉"는 해처럼 가만히 낮아지는 시간, "검은 몸부림"을 뒤에 남기고 사라지는 그러면서도 또 살아지는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노을기(노년기가 아닌)에 이르러 황혼의 조영 아래 환히 드러나는 일상의 사소한 풍경 그 가볍고도 무거운 생의 진경을 담아낸다.

'풀잎' '허무집' 등의 시집을 통해 허무의 심연과 윤화적 가치관을 노래한 시인이 근래 천착해 온 테마는 '당고마기'다. '당고마기'는 '바리공주'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 신화다.

당고마기 서사의 핵심에는 임태와 출산이 있다. 임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수난을 겪은 여성이 신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신화 등 다양한 서사들이 당고마기를 중심으로 전승된다. 앞선 시집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시집에도 당고마기모가 등장한다.

신화적 인물에 혈연 기반의 호칭이 더해져 '당고마기'는 유장하고 장대한 시간 속에서 개인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강은교만의 거리가 된다.

당고마기모에게서 계승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통으로 연장된 당고마기모의 삶이 교차하는 곳에는 '깨진 아름다움'이 있다. 짧은 날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노을기의 아름다움은 미래도, 환상도 다 깨진 뒤에 알게 되는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에는 서글픈 가운데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 대범하고도 담대한 사랑의 미학이 있다. 강은교의 언어는 깊은 허무의 공동체에 구전되는 사랑의 언어다.

임유이 기자 iye@skyedaily.com



## 녹색 힐링 숲이 좋아라

수목원 다양한 휴가 행사

“수목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다양한 야간·경관의 매력도 느껴 보세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람객을 유혹한다. 한수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가족·친구·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수생식물 산책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흥카트 해설 프로그램·맨발 숲속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수련정원에서 26종의 다양한 수생식물을 감상하는 '빛과 수련, 그리고 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3일까지 26종 수생 식물 전시

11월까지 수목원해설카트 투어

를 전시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방문자센터에서는 야생식물 종자의 가치를 알리는 특별전시 '사명(使命),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과 MZ 세대의 새로운 문화인 식테크 및 식습관·반려식물 등 식물계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식물 덕후' 행사가 펼쳐진다.

특별 해설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백두대간수목원을 프라이빗하게 둘러볼 수 있는 '달려라! 어흥

국립세종수목원

10월까지 매 주말 버블·마술쇼

박쥐란 등 희귀 식물 볼 기회

카트' 해설 투어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운영된다.

꽃마술공연장을 시작으로 940m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는 '맨발의 두꺼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밤 화려한 불빛 아래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먼저 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버블쇼

마술쇼 등 각종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 기간 한복과 효롱볼 등도 대여한다.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는 반려식물 기획전시 '박쥐란의 신비한 비행'을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박쥐란을 닮아 '박쥐란'이라 불리고 해외에서는 사슴뿔을 닮아 '사슴뿔고사리'로 불린다. 박쥐란 동호회와 협업체 국내에서 보기 매우 어려운 18종의 박쥐란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종수목원에서도 수련을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0월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앞 수련지에서는 태국의 아름다운 수련을 비롯한 33종의 수련을 감상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오늘 서울시청에 우크라이나 청년 '평화의 선율' 퍼진다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제안으로 '오직 대한민국! 오로지 국민과 함께!' 콘서트가 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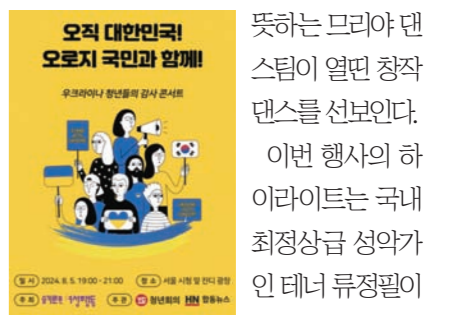
(사)슬기로운여성행동이 주최하고 YC 청년회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전

하는 '평화의 선율'로 우크라이나 학생 청년들의 무대는 물론 국내 정상급 음악가의 격조 높은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원의 뜻을 밝히며 세계 평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윤

석열 대통령과 한국 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의 서막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연다. 4인조 여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리드니 밴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나는 나비' '희망은 여기에' 3곡으로 오프닝 무대를 연다. 이어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하는 드리아네펀 스타팀이 열린 창작댄스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인 테너 류정필이 장식한다. 류정필은 '함께 가자' '희망의 나라로' 2곡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임유이 기자 iye@skyedaily.com

##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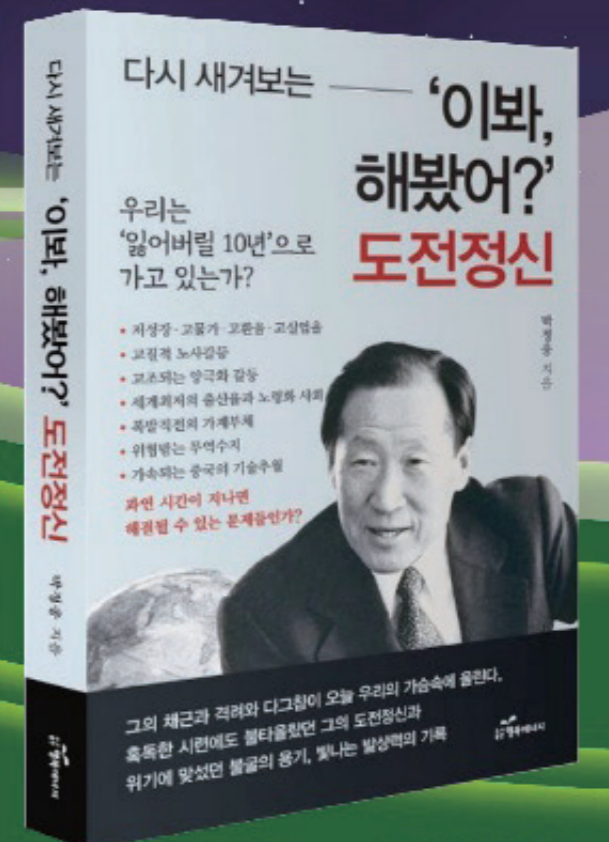
거인의 발자취에 담긴 가치 재발견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창조와 혁신의 화신'

모두 안 된다던 울산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박정웅 지음 · 행복에너지 값 25,000원